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문 **극심한 가정 폭력, 이혼을 원치 않는데**

〈문〉50대 가정 주부입니다. 어제 밤 남편이 술에 취해 가구를 마구 던지고 저를 몹시 때렸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집안은 깨진 유리 조각, 나동그라진 가구들로 엉망이었고 얼굴을 맞아 눈 주위가 붓고 코피가 난데다가 옷소매로 닦아 상의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화로 어디에 또 신고를 하는 듯 하였고 남편을 연행하면서 저에게 Emergency Protective Order라는 종이를 주고 갔는데 무엇인지요. 또 저는 남편과 이혼할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남편이 당분간 저나 집 근처에 오지 말고 서로 시간을 가지며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보호대책이 있는지요.

〈답〉귀하가 받은 Emergency Protective Order란 일시적으로 귀하를 또 다른 가정 폭력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이 법원에 전화로 응급상황을 보고하고 받아낸 법원의 명령입니다. 남편이 감옥

에서 보석금을 내고 나와도 귀하나 귀하의 거주지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아주 위급한 가정폭력 사태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대책으로써 그 유효기간이 발급 이후 5~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그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귀하가 남편으로 인한 또 다른 가정 폭력이 우려될 경우, 귀하는 속히 해당 가정법원을 통해 남편을 상대로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을 통해 받는 접근금지 명령은 이혼이 전제가 될 필요가 없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경찰이 응급 상황에서 받은 명령보다 길습니다. 명령이 유효한 기간에 귀하의 남편이 주벽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카운슬링을 받으며 귀하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절차는 해당 법원이나 전문인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문 **이혼하면 배우자 회사의 건강 보험 혜택 받지 못하나**

〈문〉저는 50세의 남자로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다년간 큰 미국 회사에 근무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혼 수속중인데 아내가 최근에 저를 아내 직장에서 나오는 건강 보험에서 배우자로 더 이상 혜택을 못 받도록 제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는 10년 이상 갖고있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다른 보험을 찾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귀하께서는 연방법령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COBRA)에 입각해 규모가 큰 미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아내와 이혼 수속 중이거나 혹은 완료이후에도 지금까지 아내의 직장을 통해 사용해왔던 건강 보험의 혜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BRA란 20명 이상

의 고용인을 갖고 있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건강 보험에 적용되며, 고용인의 이혼으로 인해 그 배우자가 더 이상 고용인의 배우자로서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나쁜 조건으로 다른 건강 보험을 구입해야 하거나 아예 보험을 갖지 못하는 부당한 경우를 방지, 보호하는 법령입니다. 단 아내 회사의 건강 보험을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는 아내의 건강 보험회사에 속히 연락하시어 이혼 사실을 통보하고 지속적인 보험혜택을 요청하시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 이혼 이후에, 아내의 직장의 건강 보험을 계속 사용하실 경우, 본인의 건강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기존의 보험 Plan에 의해 책정되며 본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문 **조카가 병상 이모 법적 보호인(Conservator)이 될 수 있나**

〈문〉저의 72세의 이모님이 수술후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처음에는 수술 경과도 좋았고 속히 퇴원할 듯 쾌차하시더니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의식 불명이라도 될까 걱정입니다. 이모님은 자제 분이 없고 제가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귀하의 이모님께서 곧 의식 불명이 될 상황을 대비하여 귀하께서 이모님의 법적 보호자(Conservator)가 되시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자신의 재정 문제나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은 개인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건강 관리, 재정 관리 등을 담

당하고 보살펴 줄 법적 보호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이 정신적으로 자신의 법적 보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경우, 개인이 선정하는 자가 개인의 법적 보호인으로 임명받을 수 있도록 해당 Probate Court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개인이 법적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개인이 추대하는 자의 법적 보호인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개인의 법적 보호인을 임명하며 그의무를 규정짓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모님께서 의식이 있을 동안 위의 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 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신화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90010